



CJ제일제당
美 'KCONLA'서
비비고 체험마케팅
L2



Life

삼성전자
명작 43점
TV로 만나다
L4



판 넓은 중국 오픈웨이트 AI… 기술 한계·수익화 ‘시험대’

중국 첨단산업지도

AI 플랫폼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2025년 1월 제한된 연산 자원과 낮은 훈련 계산 비용으로 미국 상위권 모델에 견줄 성능을 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AI 시장이 흔들렸다.

딥시크 쇼크 이후 알리바바의 큐원(Qwen), 문샷 AI의 키미(Kimi), 조푸AI의 GLM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 학습을 마친 모델의 가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시장에서 중국 개발자들의 비중도 빠르게 커졌다. 학습 데이터와 훈련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모델을 내려 받아 자체 서버에 배포하거나 라이선스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선택지를 넓혔다.

◆딥시크 쇼크 1년 7개월…종합 성능은 미보다 8개월 뒤

딥시크가 추론 모델 R1을 공개한 것은 2025년 1월 20일이다. 딥시크 앱이 같은 달 27일 미국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자 엔비디아 주가는 약 17%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5900억달러 증발했다. 당시 미국 증시 역사상 한 종목의 하루 시가총액 손실로는 최대였다.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높은 성능과 함께 공개된 낮은 훈련 계산 비용이었다. 당시 약 560만달러로 알려진 비용은 R1의 총개발비가 아니라 기반 모델 V3의 전체 훈련 계산 비용이다. 딥시크는 V3 훈련에 사용한 278만8000H800 GPU시간에 시간당 2달러를 적용해 557만6000달러로 산출했다. 선행 연구와 실험, 하드웨어 취득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R1에 이어 딥시크는 2026년 4월 V4 프로와 플래시 프리뷰를 내놨다. 미국 상무부 표준기술 연구소(NIST) 산하 AI표준혁신센터(CAISI)가 같은 해 5월 V4 프로를 평가한 결과 중국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했지만 종합 성능은 공개 출시된 미국 최전선 모델보다 약 8개월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공개한 자체 벤치마크에서는 V4 프로가 오픈스 4.6과 GPT-5.4에 근접해 미국 최전선과의 격차가 약 2개월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CAISI가 사전에 정한 공개·비공개 평가를 적용하자 약 8개월 전에 출시된 GPT-5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두 평가의 차이는 과제별 결과에서 드러났다. V4 프로는 수학 PUMaC 2024에서 96%로 GPT-5.5와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공개 소프트웨어 공학 평가인 SWE-Bench Verified에서도 74%로 GPT-5.5의 81%에 근접했다. 반면 CAISI 자체 평가인 포트벤치에서는 44%로 GPT-5.5의 78%에 크게 뒤졌고 추상 추론 ARC-AGI-2에서도 46%로 GPT-5.5의 79%와 격차를 보였다.

◆저가·공개 가중치로 확산…수익화 과제

낮은 API 가격은 딥시크가 이용자를 빠르게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3일 기준



中 ‘딥시크’ 등장에 세계 AI 시장 흔들 낮은 API 가격·가중치 공개로 이용자↑

올해 4월 공개한 ‘V4프로’ 평가 결과 종합성능, 미국 모델에 8개월 뒤쳐져 수학·공학 전전에도 추상추론 등 한계

딥시크 V4 프로 0813 버전의 가격은 100만 토큰당 캐시되지 않은 입력 0.435달러, 출력 0.87달러다. 캐시된 입력은 0.003625달러다.

현재 가격은 CAISI가 평가할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다. CAISI는 100만 토큰당 입력 1.74달러, 출력 3.48달러를 적용했으며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V4 프로는 GPT-5.4 미니보다 7개 벤치마크 중 5개에서 비용 효율이 높았다.

다만 현재의 낮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딥시크는 지난 6일 전체 API 서비스 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가중치가 공개된 것도 확산 요인이다. 기업은 라이선스 범위에서 모델을 내려받아 자체 서

버에 배포할 수 있어 중국 개발사의 API로 업무 데이터를 직접 보낼 필요가 없다.

오픈라우터에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주간 토큰 처리량의 평균 약 13%를 차지했다. 중국 외 오픈웨이트 모델은 평균 13.7%, 중국 외 폐쇄형 모델은 약 70%였다. 중국 모델이 플랫폼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간에는 비중이 약 30%까지 상승했다.

분석 말기 기준 중국 모델의 역할극 비중은 약 33%였고 프로그래밍과 기술 범주를 합친 비중은 39%였다. 중국 모델의 사용이 기술 작업으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사용량 확대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디인포메이션은 딥시크의 연환산 매출을 4억~5억달러로 추산했다. 2차 투자 유치에서 거론된 약 740억달러의 기업가치는 매출의 약 148~185배에 해당한다.

딥시크는 7월 중순 약 500억위안 규모의 2차 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같은 달 25일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8월 6일 조달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보도됐다. 약 5000억위안의 높은 기업가치는 성장 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수익화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기도 하다.

◆첨단 칩·신뢰는 장벽…美 규제 속 일부 기업은 채택

중국 모델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은 연산 자원이다. 미국은 블랙웰 계열 등 최첨단 AI칩의 대중국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 2026년 1월 H200과 동급 칩은 일정한 조건 아래 사례별 허가가 가능해졌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 최전선 기업과 같은 규모와 조건으로 연산 자원을 확보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치적 신뢰 문제도 남아 있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모델과 공개 가중치 모델은 자국 규제에 맞춰 민감한 질문에 답을 피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연방 기관 전체의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25년 2월 발의됐지만 2026년 8월 현재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다. 지난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모델의 정부 조달 제한과 미 상무부 엔티티리스트 등재, 전면 금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딥시크 API 서비스 가격 인상 계획 저가 한계… 지속가능 수익화 ‘과제’

AI칩 수출제한에 연산자원 확보 난항 정치적 신뢰 문제에 美정부 규제 나서 커서 등 일부 美기업은 중국모델 채택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와 달리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베드록을 통해 딥시크와 큐원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도 딥시크와 키미 계열 모델을 서비스한다. 중국 개발사의 API를 직접 호출하는 대신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AI 코딩기업 커서도 지난 3월 공개한 ‘컴포저 2’의 기반 모델로 문샷AI의 키미 K2.5를 사용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 논의와 민간 기업의 채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은 첨단 칩 확보와 정치적 신뢰, 수익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딥시크가 API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낮은 가격과 개방성을 앞세운 확산 전략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이강인, 아틀레티코 공식 입단식 가져…“모든 대회서 우승 원해”
/사진 뉴시스
▲‘한풀 꺾인 더위’ 프로야구, 25일부터 다시 오후 6시30분 시작

▲설화를 국악관현악으로…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신룡투전’
▲나훈진 ‘호프’, 홍콩 여름 국제영화제 개막작…홍상수 초기작 특별전

▲전국체전에 2만9044명 참가…전산 기반 대진 추첨 도입
▲남자 청소년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위해 오늘 요르단 출국